

안녕하세요?
지식 캠퍼스의 정재영입니다.

이번은 옥스퍼드 투어입니다.

옥스퍼드는 런던에서 1시간 정도면
도착하는 도시죠.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옥스퍼드는

정형화된 투어 코스가 있습니다.

38개의 칼리지를 다 구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규모가 큰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와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이 난

처웰 강변의 모듈린 칼리지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또 영국에서 대형 도서관 다음으로
규모가 큰 보들리언 도서관과

대학 졸업식 같은 대학 행사와
시민들을 위한 공연 예술 장소로

두루 사용되는 웰던 극장도
약방도 감초처럼 들어가죠.

이 관광 명소는 <해리 포터> 영화에
등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철학 산책도
이 코스를 따라갑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는
영국인이 유별하게 사랑하는

로크가 다녔던 대학이고요.

모듈린 홀은 영국인이
또 끔찍하게 싫어하는

홉스의 출신 대학입니다.

웰던 극장은 영국 왕립협회를
사실상 출범시킨

옥스퍼드 철학 클럽의 핵심 멤버
크리스토퍼 렌이 설계한 건물입니다.

이렇게 엮든 저렇게 엮든
옥스퍼드는

미셸 푸코의 이야기대로
지식의 고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도시 같습니다.

도시 전체에 우리가 잘 아는
명사들의 삶과 생각의 편린들이

켜켜이 쌓여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기가 막히게 관광 상품으로
포장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중세 대학에서 출범해서 세계에서
가장 명성 높은 대학의 하나로

옥스퍼드가 발전하게 된 계기는
파리 대학 유학 금지령이었습니다.

12세기 후반에 영국의 국왕
헨리 2세가 그런 조처를 내렸죠.

일종의 국산품 애용
운동이라고 할까요?

당시 영국에 있는 대학이라고는
옥스퍼드가 유일합니다.

파리 대학 입학을 금지하면
갈 곳이라고는

옥스퍼드밖에 없게 되죠.

아, 케임브리지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은 13세기 초반
옥스퍼드에서

도시와 대학 사이의 갈등으로
옥스퍼드 교수들이

케임 강변으로 이동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여기서 타운 앤 가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시를 가리키는 타운과
학사 옷을 가리키는 가운을

라임에 맞춰서 만든
용어입니다.

17세기 영국 내란 때도
타운과 가운은 짝 갈라졌습니다.

옥스퍼드 타운은 다른 도시들처럼
의회파가 장악했고요.

옥스퍼드 대학은 왕당파의
캠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런던 투어 첫 탄에서
베이컨의 새로운 학문 기획이

과거 학문의 대장 격인
아리스토텔레스 부수기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살펴보았죠.

이 바통은 홉스가 이어받습니다.

홉스는 베이컨의 개인 비서였고
데카르트의 논적이었으며

갈릴레오의 추종자였습니다.

요즘 18세기에 영국 귀족 청년들이
프랑스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가는 여행

그랜드 투어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요.

사실 홉스만큼 그랜드 투어를
많이 한 인물이 없을 겁니다.

홉스는 귀족 자제의
가정 교사로 3번

그리고 정치적 망명으로 1번, 모두
4차례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의
학문 세계를 넓혀갔습니다.

홉스는 옥스퍼드 하트퍼드 칼리지를
졸업하던 해에

카벤디시 가문과 첫 인연을 맺습니다.
그때 홉스 나이 20세입니다.

그의 첫 제자,
후에 디본셔 2대 백작이 되는

윌리엄 카벤디시 나이는 18세입니다.
불과 2세 차이밖에 안 되죠?

같은 또래 나이의 홉스를
가정 교사로 삼은 것은

디본셔 초대 백작의
의도였다고 합니다.

홉스가 22세 되는 해에 그들은
베네치아를 여행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물다가
스위스,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가는
당시 전형적인 코스였습니다.

이때 홉스는 자신이

옥스퍼드에서 배운

스콜라 학문이 이미
유럽 대륙에서는

한물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홉스는 중년의 나이로
진입하는 40세에

두 번째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홉스의 첫 번째 제자
디본셔 2대 백작은

사망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카벤디시 가문의 소개로
또 다른 귀족 명문가인

우티먼셔 클리프톤 가의 가정 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유럽 여행과 비슷하게
프랑스, 파리에 머문 다음에

최종 목적지는 베네치아로
삼았지만

프랑스와 에스파냐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프랑스에서만 1년 반을 보내다가
돌아왔다고 하죠.

두 번째 여행에서 홉스는
<유클리드 원론> 라틴어 본을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세 번째 홉스가 갔던
유럽 여행은

그가 카벤디시의 가정 교사로
복귀한 후의 일입니다.

홉스의 세 번째 제자는
첫 번째 제자

2대 디본셔 백작의 맞아들
3대 디본셔 백작입니다.

이때 홉스는 파리에서 새로운
지식 그룹의 중심축이었던

메르센 신부를 만납니다.
메르센 신부는 학창 시절부터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와
절친이었습니다.

메르센 신부와의 만남은
메르센 그룹의 일원이었던

데카르트와 그리고
가상디와 교우를 맺고요.

또 후에 데카르트가
<성찰>을 출간할 때

이 책의 세 번째 비평가로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3번의 유럽 여행을 통해서
홉스는 단순한 귀족의 가정 교사에서

근대 정치 철학을 대표하는
학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번째 파리 여행은 귀족의
가정 교사 자격이 아니라

사실상의 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1년간 이어진
여행 끝자락의 결실이

<리바이어던>이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수상한
책이었습니다.

왕당파는 이 책을 크롬웰에게
헌정하는 책으로 의심했습니다.

의회파는 왕정복고를 소망하는
책으로 읽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성서 욥기에
등장하는 바다괴물이죠.

홉스는 이 리바이어던을
인공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런 인공 인간을 만들었는가?
왜 이런 인공 인간이 탄생했는가?

홉스는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 계약이라는 사유 실험을 합니다.

사회 계약은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이행하는 것을 말하죠.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올 어게인스트 올 (all against all)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삶을
홉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짧다.”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이죠.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인간은 주어진 자연권을

계약을 통해서 리바이어던에게
양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리는 근대의 정부가

탄생하는 원리가 됩니다.

또 정부가 권력의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철학은 진영 논리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보편 원리를 지향합니다.

물론 모든 철학자는 무색, 무취,
진공 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색깔과 자신이 지향하는
이념이 반영됩니다.

홉스의 정치 세계가 왕당파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죠.

또 홉스가 지향하는 이념이 절대
왕정이었다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은
항상 보편성을 띠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영 논리를 앞세우는
전략적 사유와

보편 원리를 정초하는 철학적
사유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금서로
뒤편 리바이어던은

왕당파의 진영 논리를 대변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왕당파의 진영 논리는 유명한

왕권신수설에서 나오죠.

'왕의 권한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이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홉스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
자연권을 정부에

양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죠.

왕당파는 홉스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의회파는 맘스베리의 악마라고
홉스를 불렀습니다.

맘스베리는 홉스가 태어난
작은 마을입니다.

리바이어던, 이것은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홉스의 처방전이었습니다.

로크가 다닌 크라이스트 처치로
넘어가죠.

옥스퍼드에서 가장 큰 칼리지입니다.
영국 수상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13명의 영국 수상이
나왔다고 하죠?

세익스피어의 희곡에서도
크라이스트 처치가 인용됩니다.

또 대학 앞에 있는 정원
쿼드랭글은 참 아름답습니다.

옥스퍼드에서는 쿼드랭글을 보통
쿼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옥스퍼드 칼리지 중에서도
가장 크고 아름답습니다.

또 크라이스트 처치로
들어가는 정문은

영국인이 사랑하는 크리스토퍼 랜이
설계한 시계탑입니다.

이 시계는 밤 **9**시가 되면
101번 울립니다.

아, 9시를 9시 5분으로
정정해야 되겠군요.

옥스퍼드 타임 9시는
그리니치 타임으로

9시 5분이라고 합니다.

로크는 20세에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홉스가 같은 나이에 하트퍼드
칼리지를 졸업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가 영국에서 손꼽히는 명사

웨스트민스터 학교를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대학교
대학 이전 학교 교육의 경계가

지금과 같이 선명하지
않거든요.

로크는 후에 옥스퍼드에서
받은 교육을

좀 따분하고 지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크는 1656년에 학사
1658년에 석사 과정을 마쳤지만

계속 옥스퍼드 대학에
남아있었습니다.

석사 학위를 받은 뒤에
그는 크라이스트 처치 스튜던트

요즘으로 하게 되면 학생을 의미하는
스튜던트가 아니라 펠로우입니다.

학부 학생을 지도하면서 연구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이때 논문을 썼고 수사학과
그리스어 강의도 했습니다.

이 논문들은 지금 보들리언 도서관에
다 소장되어 있습니다.

1663년엔 학생감이 되었고요.
로크의 자연법 사상과 경험주의가

이미 배태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
자연법에 관한 시론을 집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1675년은 의학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이게 재밌죠.

로크가 옥스퍼드에서
석사까지 마친 후에

의학 학사를 취득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로크는 공인된
의사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세 대학의 교육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옥스퍼드와 같이 오래된 대학은
학부를 마치면 상위 학부로 갑니다.

의학부, 법학부, 신학부같이요

학부 과정은 오늘과 같은 전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학문의 토대를 둔
스콜라 학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베이컨도 홉스도 로크도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바로 스콜라 말입니다.

학부를 졸업한 이후에는
셋 중 하나죠.

의사가 되거나 법률가가 되거나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공으로 하는 길이 의학부,
법학부, 신학부가 됩니다.

베이컨은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나와서
법률가의 길을 걷습니다.

옥스퍼드를 나온 벤담도 마찬가지로
법률가의 길을 걷죠.

다윈은 케임브리지 시절에
자연사학 공부에 푹 빠져 살았죠.

이때 그를 지질학 연구로 인도한 것이
헨즐로 교수와 세지윅 교수인데요.

이들은 목사 신분을 가진
성직자입니다.

로크가 걷고자 하는 일은
의사가 되는 길이였습니다.

로크의 선택에는 옥스퍼드
철학자 그룹과의 교우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옥스퍼드 철학자 그룹이란
보일의 법칙으로 유명한 로버트 보일

영국의 다빈치로 불렸던
재주 많은 로버트 후크

그리고 지금은 자연과학
당시는 자연철학으로 불렸던

일군의 학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베이컨이 제시한 학문의
길에 따라 실험과 귀납을 중시했고

협동 연구를 통해서 낡은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과학을
개척하고자 했습니다.

1667년에 로크는 애슐리 경의
종양 수술을 계기로

그의 고문 의사 겸 비서가 되면서
옥스퍼드를 떠납니다.

이후 로크의 삶은 신중한 그의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게

혁명가로서의 삶을 걸습니다.

철학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실패한 혁명가 철학자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플라톤은 지금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이상 국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칠리아를 몇 번 방문했죠.
그것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아테네에
아카데메이아를 세웠습니다.

마르크스는 그의 평생 동지
엔겔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을 작성하고
1848년 혁명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실패해서 런던으로
망명하죠.

그 후 그는 대영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본론을 집필했습니다.

로크는 철학의 역사에서
드물게 보는

아니, 아마도 유일하게 성공한
혁명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혁명의 정신을
잇기 위해서는

그가 쓴 <정부에 관한 두 논고>를
읽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책에서 로크는 홉스가 제시한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

그리고 사회 계약의 성격을
살짝살짝 비튼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홉스의 주장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아닙니다.

그런 무법의 전쟁 상태가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서만
자연법이 작동합니다.

단지 다소 불편할 뿐이죠.

그래서 인간은 계약을 맺고
사회 상태로 이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정부는
홉스가 얘기한 것처럼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닙니다.

또 무엇보다도 개인은
그렇게 모든 권한을

정부에게 양도한 것도 아닙니다.
양도할 수 없는 3가지 권리가 있죠.

그것은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
이것은 개인이 정부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점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로크는 그것을 신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 위임된 권한을
잘못 행사할 때는

정부를 바꿀 수도 있다고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생각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생각이 처음부터
쉽게 획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생각을 얻기 위해서 영국은
17세기 내내 내전으로 진통했고

로크는 그것을 수십 년 동안
고쳐 썼습니다.